

# 광주, 초등교사 진입 문턱 가장 높다

### 지원자 대비 합격률 13.6% '전국 최저'...전남은 54.5% 학령 인구 감소에 신규 임용 줄어...교대 정원 등 손봐야

광주가 전국에서 초등교사 진입 문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2학년도 광주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모두 44명이 지원해 6명이 합격했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13.6%에 그쳤다. 이어 서울(29.8%), 대전(33.3%)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심으로 초등 임용 합격이 더욱 '바늘구멍'인 것으로 파악됐다. 189명 선발에 347명이 지원한 전남의 합격률은 54.5%로 대구(63.3%), 경북(58.6%), 제주(56.1%), 충북(55.6%)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광주 초등교사 채용인원은 2020학년도 10명, 2021학년도 11명, 2022학년도 6명 등 사실상 한자릿수다. '초등 임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산술적으로 2022년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이 모두 195명을 선발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는 현재 4학년 학생 330명(남 120

명, 여 210명) 가운데 135명 가량은 광주-전남지역에 채용될 수 없다.

교사보다 교육공무원 채용인원이 증가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초등교원 9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제1회 교육공무원 채용에서는 모두 102명을 선발한다. 조직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와 휴직자(120명)가 급증한 탓이지만 초등교사 선발인원과 엄청난 격차다.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선발인원도 9개 직종 309명에 달한다. 전남의 교육공무원 선발 인원도 올해 초등교원 선발 인원(154명)을 크게 웃도는 203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 합격률은 48.6%로, 2013년(43.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합격률이 반타자이 되지 않은 것도 2013년 이래 처음이다.

초등 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4~2017학년도까지 60%대 후반을 기록했으나 2018학년도부터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합격률은 2017학년도 69.5%를 기록한 뒤 이듬해 63.9%로 떨어졌다. 2019학년도엔 57.3%, 2020학년도 53.9%, 2021학년도 50.8%로 하락하더니 2022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더 떨어지며 50% 미만까지 내려갔다.

합격률이 낮아진 것은 학령 인구가 줄면서 신규 임용 규모가 감소하는 탓이 크다.

신규 임용 규모인 임용 합격자 수는 2014년 7369명에서 지난해 3565명으로 연평균 8.7%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용 지원자는 1만638명에서 7338명으로 연평균 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원자보다 신규 임용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 경쟁률은 오르고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대 정원을 손질하지 않는 이상 합격률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령 인구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초등 교원 신규 임용 규모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美에 5·18 진상규명 요청해야”

### 미 언론인 팀 셔록 광주 방문 “진상조사위 최종보고서 기대” “세계 정세에 불공정 개입한 美 정부 실상 기록으로 보일 것”

미국 언론인 팀 셔록(Timothy Scott Shorrock·사진)이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해 “이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5·18 진상규명을 요청할 차례”라고 밝혔다.

팀 셔록은 지난 1981년 미국 저널 오브 커머스 기자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취재하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5·18 관련 자료를 요청해 공개했다. 지난 1996년에는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전문 ‘체로키(Cherokee) 파일’을 공개해 미국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 정황을 밝혀냈으며, 지난 2017년 체로키 파일과 ‘미 국방정보국(DIA) 문서’ 등 5·18 관련 3514쪽 분량 58개의 기밀 문서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지난 22일 6년만에 광주를 찾은 팀 셔록은 반전운동가 에드 킨슬리와 동행해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기록관과 전일빌딩245를 둘러본 뒤 북구 온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묘지 방명록에는 “광주와의 연대(solidarity with gwangju)”라고 적었다.

이날 민주묘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팀 셔록은 “자신의 30여년 탐사보도 과정을 담은 책을 집필하던 중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광주를 찾았다”며 “1980년 당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 43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팀 셔록은 “2017년 체로키파일 등을 기증한 이후 5·18 진상을 밝힐만한 새로운 문건을 확



보하지 못했다”며 “기차 개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캐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18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기대가 크다”며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미국에 진상 규명을 요청할 차례다”고 역설했다.

팀 셔록은 “5·18뿐 아니라 6·25 전쟁부터 제주4·3항쟁, 최근 한·일 위안부합의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개입한 정황을 파헤치고 싶다”며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한 국가 간 거래를 일삼았고 그 탓에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정세에 불공정하게 개입·거래하는 미국 정부의 실상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팀 셔록은 23일 책 집필 작업을 위해 서울로 이동했으며 오는 2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명난 양동시장 '통맥축제'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린 '통맥축제'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양동시장 '통맥축제'는 오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10시에 열린다. /나명주기자mjna@

# “아이들 먹는건데” 광주·전남 위생 불량 적발

### 학교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등 조사...10곳 식품위생법 위반

광주·전남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 10개 업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전국 어린이·청소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4만 3978개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 587곳,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3만 3391곳 등이다.

점검 결과 전국 56개 업체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광주에서는 동구에서만 7개 업체가 적발됐다. ‘바른카페 계림점’, ‘파리바게뜨 두암타운점’, ‘세븐일레븐 두암주공점’, ‘청자다방 금남로점’, ‘순수김밥’ 등 5곳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광주시 동구 ‘수유리우동집 계림점’, ‘통닭꼬치GO’ 2곳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광주시 남구 인애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에서도 위생적 취급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전남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2곳이 적발됐는데, 순천시 ‘대신푸드’가 식품 보관기준 위반으로, 장흥군 ‘정남진장흥농협하나로마트’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관할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는 전담관리원을 보내 상시 점검을 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전남 육상 새우양식장 3곳 급성간체장괴사병 확진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

전남 육상 새우양식장에서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 확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가 발령됐다.

23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에 있는 힌다리 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으로 확진됐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1일을 기해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비브리오팀에서 발원되는 새우 급성간체장괴사

병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감염은 오염된 종자나 물, 생물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며 새우의 간체장, 위, 중장 및 후장에서 이뤄진다. 발생 자체는 확실한 방지를 위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http://chunhyang.org

# 빛을그리다

## 2023.5.25<sup>목</sup> ~ 5.29<sup>월</sup>

###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